

## 2011년도 말(馬)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건강·복지 증진 방안 심포지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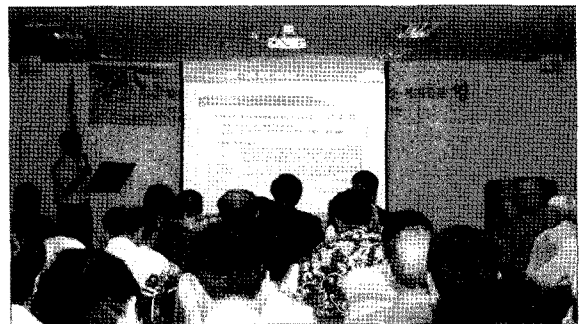
우리협회에서는 KRA한국마사회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목) 농업기술진흥관 대강당에서 말 산업 종사자, 지자체 관계 공무원, 농업관련 기관 그리고 우리협회의 마필산업연구회(회장 윤종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馬)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건강·복지 증진 방안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말 산업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새로운 대안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복지 증진 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지난 3월 국회에서는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말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말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협회 윤천영 회장의 인사말과 한국농업경영

인중양연합회 김준봉 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실시된 이번 심포지엄은 손용석 교수(고려대 생명과학대)를 좌장으로 하여 먼저 박승완 차장(한국마사회)의 “말 산업 육성대책”, 최영 관장(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말을 활용한 장애인 직업 재활방안”, 편영수 상근자문위원(새만금TF)의 “농촌형 승마장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갑수 회장(한국치료 및 장애인승마협회)의 “말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이질적 문화 극복사례”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주제·사례발표자 전원과 패널토론자인 정명진 교수(단국대 운동처방학과), 박철형 농촌지도사(김제시농업기술센터), 이성복 대표(충무승마클럽), 이문하 사회복지사(한림대 BK사업단)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청중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㉟





## 2011년도 제1기 말(馬)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 지원으로 “2011년 제1기 말(馬)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지난 6월 7일(화)부터 7월 7일(목)까지 매주 4주간 10박 14일의 일정으로 농업기술진흥관 및 스티븐승마클럽훈련장, 평촌승마목장 및 현장에서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말을 활용한 각종 도농교류(그린투어리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교육은 강석인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의 “말 산업 육성방안”, 최병익 교수(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한국의 승마산업 전망과 승마교육”, 손용석 교수(고려대학교)의 “말의 소화생리와 영양관리”, 하태영 지점장(한국마사회)

의 “말의 질병과 건강관리”, 김갑수 회장(한국치료 및 장애인승마협회)의 “말 관리의 이해·재활승마의 소개와 활용방안·체협승마장 시설 및 운영사례”, 백영철 회장(한국산악승마협회)의 “승마장 개발과 경영”, 이현철 부장(한국마사회)의 “말의 번식과 혈통관리”, 박승완 차장(한국마사회)의 “말과 말산업”의 이론과 “부조의 효율적 사용법, 승마대화 방법, 마사관리 방법, 기승훈련, 승마 경보·속보 걷기, 말의 순치와 조마삭 훈련 등”의 실습 및 “한국마사회, 농촌형승마장, 말 생산목장, 꽃마차 운영장 등” 현지견학으로 진행 되었다.

한편 2011년 제2기(총13기) 교육은 다가오는 9월 말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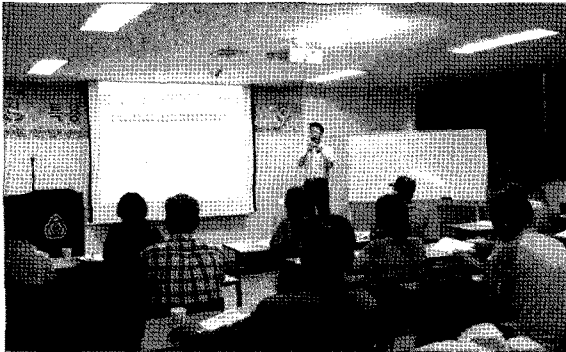
## 2011년도 특용·약용작물재배 입문과정 교육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의 지원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업교육사업의 일환인 “특용·약용작물재배 입문과정”을 농업기술진흥관 및 국립산림과학원, 남양주조북산삼에서 농업인 및 귀농·귀촌예정자 54명(기수별 27명씩)을 대상으로 1기는 지난 7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2기는 지난 7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총 2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등이 관심이 높은 특용·약용작물의 친환경 재배 기술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교육은 이상준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박충범 과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약초산업 현황 및 우수농산물생산”, 김영국 농학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약용작물 GAP 재배기술”에 대한 이론과 김세현 연구관(국립산림과학원)의 “친환경 특용수종 재배기술”, 박동준 대표(남양주 조북산삼)의 “친환경 산양삼 재배기술”에 대한 실습으로 진행 되었다. ㉞





## 2011년 도시민 농사입문과정 실시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후원으로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인 “2011년 도 도시민 농사입문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사에 관심 있는 도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당일 형, 2일 형, 1박2일 형, 1박3일 형, 1박4일 형”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9일(목)에 당일 형, 6월15일~17일(금)에 1박3일 형은 실시되었다.

당일 형 교육은 강일동 교육농장에서 친환경 발작물재배 실습과 양평과수마을에서 산나물채취 체험 등 농촌체험을 실시하였다.

1박3일 형 교육은 도시민에게 유익한 농업정책과 전원생활 준비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강일동 교육농장에서 친환경 발작물재배, 친환경제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그리고 이천 부래미마을과 양평 과수마을에서 방울토마토 따기, 오디 따기 등의 농촌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은 “도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이용과 농촌체험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농사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농업·농촌 정책에서부터 전원생활준비, 친환경 발작물 재배, 친환경 제재를 활용한 병해충방제, 농촌체험·견학 등으로 “이론, 실습, 체험, 견학 등” 다양한 방법과 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 때 교육생 개별에게 강일동 실습농장(1인당 약5명)과 퇴비, 씨앗, 모종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실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실습농장은 12월 초(김장채소 수확)까지 개인 주말농장처럼 교육생 뿐 만아니라 가족전체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친환경 채소에 대한 “파종·재배·수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은 김장채소 재배시기인 8월 중순 부터 9월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형태에 따라 각 30명 정도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우리협회로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수팀(전화:02-794-7270)으로 문의 하면 된다. ☎

구분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당일 형	실습: 계절별 주요 발작물 재배실습 체험: 농촌체험 및 마을 둘러보기	1박3일 형	이론: 농업·농촌 정책, 전원생활준비방법 실습: 계절별 주요 발작물 재배, 친환경제재를 이용한 병해충방제 체험: 농촌체험 및 마을 둘러보기
2일 형	실습: 계절별 주요 발작물 재배실습 체험: 농촌체험 및 마을 둘러보기		1박4일 형
1박2일 형	실습: 계절별 주요 발작물 재배실습 체험: 농촌체험 및 마을 둘러보기		





## 2011년도 귀농·귀촌교육 실습형 종합교육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의 지원으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부터 9월 30일(금)까지 5주간의 5박 17일의 일정으로 “2011년도 귀농·귀촌교육 실습형 종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형 종합교육으로써 귀농·

귀촌 결심 및 실행 단계에 있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정책 및 제도와 영농기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귀농·귀촌 실행의 조기화를 이루고자 현장 실습·체험 위주로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㉞



## 2011년도 제3기 도시민(소비자)생활농업 교육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재개발원의 지원으로 다가오는 8월 17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3주간 1박 10일의 일정으로 “2011년도 제3기 도시민(소비자)생활농업교육”을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도시민(소비자)들이 농업의 생활화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전원생활, 웰빙생활 등)을 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에서 농업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론과 실습·체험·견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㉞





## 회장단 당면업무 협의회 개최

우리협회 회장단은 지난 5월 24일(화) 오전 11시부터 회장단은 협회 진흥관 사랑방에서 당면업무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는데 회의내용으로는 첫째, 강일동 농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협회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이 문제는 사무처가 진행경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다만 최대한으로 관계기관 등에 자문·협조를 구하기로 하였으며, 이어서 부회장 역할 분담방안에 대하여는 사무처 각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해외 농업연수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바, 중국연수 일정에 백두산 등정은 빼는 것으로 하여 별도의 안대로 추진하고, 다만 일본연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천영 회장, 서영욱, 최준혁, 윤종옥 부회장이 참석을 하였고 농수축산연합회 출범식 참석관계로 12시경에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경에 속회를 하여 5시경에 회의를 마치고 헤어졌다. ㉞



## 시·도연합회 소식

### ■ 광주·전남도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지난 6월 17일(금) 오전 11시부터 광주·전남도연합회(연합회장 장창환)는 광주광역시내 꽃돈식당에서 연합회 임원 등 10명이 참석하여 임원회의를 가졌다. 서영욱 부회장이 본회의의 주요 사업보고를 하고 장창환 연합회장이 회의를 진행, 상반기 지회총회, 농민대학개최 보고에 이어 7월 중 회무위원회개최와 연합회가 주관하는 지회 합동 농민대학개최 관계 등을 논의하여 추진관계는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 논의를 끝으로 오찬을 함께한 후 오후 2시경 산회하였다.

### ■ 충청도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충북도연합회(연합회장 이상수)는 06월 27일(월) 오후 1시부터 단양군지회 조순호 지회장 버섯연구소에서 10여명의 연합회 임원 및 지회장 등이 참석하여 2/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종옥 부회장은 본회 회장을 대신하여 연합회 활성화 문제 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이어 지회활성화 방안이 논의가 되고 3/4분기모임은 야유회를 겸하여 연합회 단합모임을 갖자는 의견을 모으고, 이어서 당일 행사인 단양마늘 신기술 개발(조순호 지회장) 품평회, 기술평가 및 투자자 유치행사에 참석, 자리를 같이하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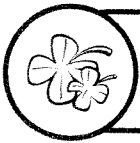
### ■ 광주·전남도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지난 07월 08일(금) 광주·전남도연합회(연합회장 장창환)는 오전 11시경부터 광주시내에 소재한 꽃돈식당에서 26명의 연합회 임원,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2차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보고와 연합회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고, 협의사항에 들어가 7월중 연찬회 겸 지회연합 농민대학개최를 결의하고 이어 본회가 추진하는 중국농업연수관계를 논의, 연합회장이 주선, 대상자를 조정, 참여하며, 면세유연구와 추진 서명운동은 지회별로 100명 이상을 확보, 본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7월 연찬회 및 농민대학이 끝나면 사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을 출범하기로 하고 오후 2시경 오찬을 마지막으로 회의가 마무리되고 헤어졌다.

### ■ 대구·경북도연합회 회무위원회 개최

대구·경북도연합회(연합회장 신동하)는 07월 08일(금)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성명가에서 연합회 임원, 지회장 등 19명이 참석을 하여 오전 11시경부터 금년도 두 번째 회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무위원회에는 본회 윤천영 회장을 대신하여 최준혁 부회장이 격려사와 함께 강일동 농장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보고가 있고, 이어 협의사항으로 중국 농업연수 참여에 대한 논의와 다음 회무위원회 개최는 상주시에서 9월중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중국 농업 연수는 별도의 희망자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회에서 실시하는 특용·약용작물재배 입문과정에 지역회원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기로 하고 식당에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한 후 오후 2시경 산회하였다. ㉿





## 시·군·구 지회 소식

### ■ 충북 옥천군지회 임시총회 개최

충북도연합회 옥천군지회(지회장 양태식)는 지난 05월 12일(목) 12시경부터 읍내 식당에서 지회 2/4분기 임시총회를 겸한 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올해 농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고 새로운 회원가입도 관심을 갖자고 하였다. 이어서 옥천지회가 그동안의 전통이 유지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의견을 모으고 중식시간이 되어 준비된 식사를 함께 하고 다과를 마친 후 농사일관계로 산화하였다.

### ■ 경남 진주시지회 임시총회 개최



부산·경남도연합회 진주시지회(지회장 김이갑)는 05월 12일(목) 진주시 농업인회관에서 16명의 회원 등이 참석하여 금년도 3차 임시총회를 가졌다. 회의는 오후 7시경부터 시작, 본회 정기총회, 지도자 워크숍 경과보고와 지회 회무보고가 있고, 이어 금년도 지회 정기총회를 7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회모임 시간대를 계절

별로 조정하지는 의견, 젊은 회원영입을 위해 전 회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회모임 시간대 조정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회원확충관계는 모두가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날 김점태 회원이 동심회원으로 지회에 새롭게 참여 하게 되어 환영박수 속에 소감을 듣는 시간도 있었으며 오후 9시 30분경 회의를 모두 마치고 귀가하였다.

### ■ 강원 고성군지회 정기모임 및 교육 실시



강원도연합회 고성군지회(지회장 마수일)는 06월 30일(목) 오후7시부터 10시까지 토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5명의 회원 등이 참석하여 지회 정기모임을 기회로 숲 해설가 양성교육 및 우리 숲 바로알기를 위한 숲 해설 시연 및 실무 학습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산림환경과 문화, 우리 산림의 변천과정 등 숲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숙지되고 더욱이 실무 시연으로 참석자의 관심을 가짐.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지회의 특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장상철 통일회원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장상철 통일회원(전 이사)이 2011년 4월 25일 인증번호 제 17-03-5-5번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육계(식육)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수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 작고하신 회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 선 병 문(충남 논산)

- 1981~1996까지 본회이사 역임

- 본회 원로회원 감사장



## 기타소식

■ 삼농복지재단 창립 60주년 및 삼농 송석도 선생 10주기 행사



지난 6월 25일 삼농복지재단 창립 60주년 및 삼농 송석도 선생 10주기 행사가 사회복지계 및 농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농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협회 윤천영 회장과 정장섭 고문, 박종포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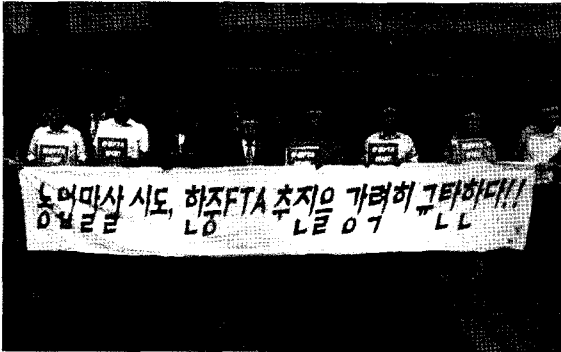
■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추진 토론회 개최

김호연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011년 6월 2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회를 비롯한 농수축산연합회 주관으로 면세유 영구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협회 의견을 개진하였다.

■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 농업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후계인력육성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2011년 6월 29일(수) 국회의원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우리 협회 윤천영 회장이 참석하시어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 한·중 FTA 저지 기자회견



지난 7월 14일 COEX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한·중 FTA추진방향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기자회견과 강력한 반대의지 전달하였으며, 농수축산연합회 이름으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한국형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각종토론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성보화학(주) 2011년 하계 WORKSHOP 개최



성보화학(주)(대표이사 박종영)는 지난 2011년 7

월 7일부터 9일까지 충주호월악산유스호텔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성보화학(주)는 이번 하계 워크숍에서 “화합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성보화학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변화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제품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 시간에는 각 분임조의 공통주제인 “성보화학의 미래와 비전”에 대하여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분임토의에는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윤정선 상무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있으며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능동적인 마음으로 화합하여 새로운 성보화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화합의 시간에는 성보화학의 미래상을 상황극으로 표현해 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 고소득 농업소득세 부활 반대성명

- 농민단체들 “과세방침 철회” 한 목소리 -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재검토 여지 있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3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세연구원에 의뢰 중”이라고 밝혀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미FTA 등으로 농가 전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 세계개편안에 농가소득세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

럽다.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비교차원이었을 뿐 그 이상도 아니다.”라며 8월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소득세부과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 농업소득세는 무엇인가?

농업소득세는 농민들에게는 ‘농지세(農地稅)’로 알려져 있는 세금이다. 이 농지세는 1962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소득세로 분리, 대지나 잡종지는 재산세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논·밭은 농지세로 구분되어 부과되다가 2000년에 농업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농업소득세는 해당 논·밭에서 재배한 각종 작물에 대한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득세 개념이 되어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비과세·감면금액,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3~4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부과됐다.

그러나 당시 농업경영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전체 농가의 1~2%만 과세 대상이고, 세수(稅收)도 연간 30억원정도에 불과해 과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 농업소득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이 관장하는 지방세로 현지 농업인들의 영농실태 파악 등에 따른 번잡성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의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급기야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농업소득세 징수를 중단했고, 2010년 1월부터는 아예 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작물재배 소득에 대한 세원 누락문제가 발생했고, 빠짐없이 세금을 부과했던 축산업 등 1차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작물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단지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된다는 사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

는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정부는 우선 상위 10% 수준의 고소득 부농(富農)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 “농업은 다기능적 측면에서의 미래가치”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농업구조에서 고소득 농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와 대규모 시설농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농가 대부분이 정책보조비와 농협 대출에 의존하여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는데도 허덕이는 실정”이라며, “한편에서는 생명산업, 녹색산업이라는 문구 아래 신 성장동력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면 누구라도 농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사라질 것”이라며 즉각 농업소득세 과세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윤천영(尹天泳)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경제적 시장논리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탁상적 발상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당국의 안일한 발상을 비판하고, “농업은 산업적 측면보다 다기능적 측면에서의 미래가치로 봐야한다. 그리고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 먹을거리 생산, 자연친화적인 환경 측면에서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차제에 농업재해보험의 폭을 넓히고, 보상지원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도 정부지원에 의존하려만 드는 거지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거듭 방침 철회가 협회의 입장임을 밝혔다. ㉞

(출처 : 농촌여성신문)